

“과학문명 노예로 전락한 인류 구하는 길은 조사선”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 법어

오늘날 현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미래를 내다볼 때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잡한 인류의 생활속에 훌륭한 정신이 정립되지 않아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정신원리에 바탕하여 세계 역사를 새롭게 재창조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세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조사선입니다. 선의 밝힘을 통해 세계역사 문명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를 서로 대화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대중은 근기가 알아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채 살아내고 있습니다. 또 전통이 사라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며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허무주의를 자각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의식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의식은 주관과 객관이 대립해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세계에서는 주관주의적 입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세계는 반드시 초월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절대무순에 빠지는 의식을 ‘망식’이라고 합니다. 선에서는 이러한 절대무순을 극복하기 위해 의식을 투과하고, 무의식도 투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투과하는 방법이 바로 ‘공안’에 의한 참선수행입니다.

보통 화두에는 1천7백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든 하나를 투과하게 되면 모두 투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두는 의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무의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면 인간의 참모습, 자유자재한 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 화두를 공부하려고 하면 이미 틀리는 것입니다. 첫째, 화두는 주·객관이 한덩어리가 되는 의식, 의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생각이 들고 끊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의식하다 보면 순일하게 의식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둘째 과정입니다. 화두를 공부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의식이 주·객관이 없는 순수한 의식이었다면 거기서 더 용맹스럽게 나아가면 의식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초등학생때 1백미터 경주를 해본 것을 생각해 보세요. 1백미터를 뛰는 동안에는 오직 뛰는 그 한생각 뿐이었지 않습니까?

무의식에서 성성하게 나아가면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해 인간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경지입니다. 시 공간도 없고 생사도 제약도 없는 자유자재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고 자유로운 자리입니다. 그 깨달은 자리를 다시 투과하는 것입니다. 처음 깨달은 자리가 일체를 투과한 자리라면 다시 일체가 현상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또 투과하면 일체를 현상하고 일체를 투과하는 것이 원래 분명해집니다. 거기서 끊어집니다. 다시 들어가고 또 들어가게 되면 무한히 투과하고 무한히 현상하면서 아주 자유자재한 자리가 됩니다.

이러한 선의 경지와 현대문명

“**모든 대립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는 것이 선의 입장입니다**”

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종교라면 이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편리하게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것이 복잡해지고 제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정신을 잃은 것은 주체성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잃고 주체성도 없이 훌륭한 역사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선을 통해 자유자재하게 되면 주체성을 확립하여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과학문명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구제하는 길은 선풍에 없습니다. 서양의 종교철학은 모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은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자비화합을 바탕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자는 정신입니다. ‘나’라는 것이 ‘무아(無我)’로 의식도 투과하고 무의식도 투과하니 걸림이 없습니다. ‘아(我)’가 없고 대립이 없습니다. 하나로 통해 자비화합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자비심으로 모든 대립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는 것이 선의 입장입니다. 그 길이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길입니다.

“삶과 깨달음 돌아닌 하나”

서옹스님과의 만남-그룹 인터뷰

8월18~22일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개최되는 ‘국제 무차선회’ 본 행사에 앞서 7월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백양사 선선당에서는 ‘서옹스님과의 만남-그룹 인터뷰 대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종림(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묵(경국사) 해묵(비백교학연구소장) 일수(백양사 운문선원장)스님과 김지경(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 심재홍(서울대) 전병재(연세대) 교수 등 국내 불교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선(禪師禪)에 관련한 문답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과 그 경지에 대한 서옹스님의 선견(禪見)이 활발히 전개됐다. <편집자 주>



니가,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옹: 그것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화두가 완전히 타파되는 순간은 무한히 투과되고 무한히 형성되는 경지에서 화두가 해결됩니다.
 -그런 후에는 다른 화두가 또 필요한지, 아니면 화두를 다시 들 필요가 없는지요?
 △서옹: 그 자리에서는 화두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자유자재합니다. 스님의 말씀 가운데 ‘투과되고 투과된다’ 말이 마치 어떤 단계가 있는 것

● 조사선·임제선에 관해

- 조사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서옹: 의식과 무의식을 투과하여 일체를 투과하고, 일체를 현상하여 원용무애하고 자유자재한 인간의 참모습을 찾는 것이 조사선입니다.
 - 조사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서옹: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일상생활 그 자리 자체가 조사선입니다.
 -마조스님의 ‘평상심이 도(道)이다’라는 말에서의 ‘도’에 대해 (육조단경)이나 해능스님은 설법을 통해 ‘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평상심 그 자체에 ‘도’가 있는 것이 평상심을 벗어나서는 ‘도’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옹: 평상심 그 자체가 ‘도’인데 그 바탕에는 일체를 무한히 투과하는 걸림 없는 자유자재가 있습니다. 그 바탕에 근거하지 않는 일상생활이라면 안됩니다.

참 석 자

- 지선스님(백양사 주지)
-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
- 종묵스님(서울 경국사)
- 해묵스님(비백교학연구소장)
- 일수스님(백양사 운문선원장)
- 김지경(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
- 김용정(동국대 명예교수)
- 심재홍(서울대 교수)
- 전병재(연세대 교수)
- 허인섭(비백교학 연구원)

● 선 수행과 화두 참구에 관해

- 무한 참구로 들어가기 이전에 준비해야 할 다른 단계가 있습니까?
 △서옹: 자신이 생사를 모든 일체를 투과할 수 있다는 뜻이 중요합니다. 그 뜻이 없으면 안됩니다.
 - 깨달음을 얻어 모든 일체를 투과하고 원용무애함을 유지하는 그 주체성을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체를 투과해 원용무애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느끼는 주체성, 정신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서옹: 정신도 주체성도 투과하는 자유자재입니다. 그러나 자유자재 하더라도 주체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스님께서 일체를 무한히 투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투과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노력이 필요합니까?
 △서옹: 투과하는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 힘을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과할 때의 그 힘은 어떤 조작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세상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깨닫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본래 자리를 찾았으니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는 완성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투과하고 또 투과하여 원용무애하고 자유자재한 인간의 참모습 찾는 것입니다”

으로 이해됩니다. 선 수행 내부에 단계가 있는 것입니까?
 △서옹: 투과되고 나면 다시 더 투과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그것을 돈오점수로 보이도록 되겠습니까?
 △서옹: 돈오점수와는 다릅니다. 돈오점수는 지혜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오돈순한 뒤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하고 차원이 달라진 상태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철스님 생전에 학자들과의 돈점은쟁이 진행했었습니다. 스님께서도 돈오돈순을 주장하고 계시지만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서옹: 성철스님은 돈오돈순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 더 할 것이 없다고

여시아문의 책들은 수행하는 불자들의 도반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주머니속 대장경 101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번역
 86 변형 241쪽 / 값 5300원

20C의 창조자, 현상 문명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숏한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그가 체득한 불교 교리의 핵심!

주머니속 대장경 201

티베트의 학승 초첵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계'

초첵 스님 편역
 86 변형 178쪽 / 값 4000원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투철한 믿음과 기초 수행을 더 중시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다. 티베트인들의 심세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은 생활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주머니속 대장경 502

확실적인 교육으로 갖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 그 해결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김홍서 지음
 86 변형 182쪽 / 값 4500원

눈높이 교육의 처음이라 할 '대기실법', '현상현유이득론'으로 밝혀 놓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 존중, 이러한 교육관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어떻게 정착되어 갈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아닐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스스로 발전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형의 교육관인 것이다.